

# 주간기도정보

2024. 6. 25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 한국, 기독교인 비율 높지만 무속신앙 의존도 높다

퓨리서치센터 1만 390명 설문, 기독교인 10명 중 3명 점 본 적 있어



여론조사 전문 기관 퓨리서치센터는 지난해 6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국, 일본, 홍콩, 대만, 베트남 등 5개국에서 만 18세 이상 성인 10,390명의 종교와 영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엔 한국인 2,104명을 비롯해 일본인 1,742명, 홍콩인 2,012명, 대만인 2,277명, 베트남인 2,255명이 포함됐다.

한국은 5개국 가운데 기독교인의 비율(32%)이 가장 높은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20%), 베트남(10%), 대만(7%), 일본(2%)이 잇따랐다. 이와 동시에 무종교인의 비율 역시 한국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52%)인 것으로 조사됐다. 홍콩(61%)이

가장 높았고, 이어 베트남(48%), 일본(42%), 대만(27%) 순이었다.

한국은 삶의 의미·목적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국가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응답자 중 52%가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삶의 의미 및 목적에 대해 생각한다’고 답했고, 37%는 ‘가끔 생각한다’, 10%만이 ‘전혀 생각 않는다’고 응답했다.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베트남(42%), 일본(30%), 대만(29%), 홍콩(20%) 순이어서 한국이 이들 국가보다 10% 포인트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기독교 신자들이 다른 종교인보다 삶의 의미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독교인 중 62%가 ‘한 달에 한 번 이상...’이라고 답변했지만, 불교도와 무종교인은 각각 50%와 47%에 그쳤다. 유교, 불교, 도교 문화가 뿌리 깊은 아시아 5개국 현실상 제사를 지내거나 타로 혹은 점을 본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제사를 지낸 적이 있다’는 항목에 베트남(86%), 대만(77%), 일본(70%), 한국(52%), 홍콩(48%) 순으로 답했다. 기독교인 비율이 높은 한국과 홍콩이 비교적 낮게 나온 것인데, 그럼에도 한국 기독교인의 33%는 제사를 지낸 적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 기독교인 30%는 ‘지난 1년간 타로·점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국내 불교인(50%) 및 무종교인(39%)에 비교해 낮은 응답률이지만 대만, 홍콩, 베트남의 기독교인은 각각 3%의 응답률을 기록해 한국이 유독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영훈 성결대 문화선교학과 교수는 점이나 사주 등 주술에 의존하는 인구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며 크리스천도 예외가 아니라면서 “점을 본다고 해서 꼭 모두가 주술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타로 등이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일종의 문화처럼 다가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세속화 시대에 들어서며 종교 역시 세속화 시대에 맞는 종교로 탈바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 종교사회학 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삶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한국 사회 현실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드라마 ‘도깨비’ 등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아 재미 삼아 점을 보는 예도 있는 한편, 삶의 불안함과 불확실성,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무속에 의지하려는 예도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점술가에게 돈을 내고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상담하는 것이 심리상담을 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는 해외 연구결과가 있기도 하다”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좇아 무속에 의존하는 일이 유행처럼 번져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출처: 국민일보 종합).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요한일서 2:15-16)**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요한복음 7:37-38)**

하나님, 생명과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과 영원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께 나아가지 않고 점을 치고 주술을 의지하는 기독교인이 많다는 참담한 소식에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세속화 시대에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거스르기 보다 재미와 문화라는 타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들에게 애통하며 회개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하고 불안한 영혼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참된 만족으로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진리의 사랑 위에 굳게 서서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대적하고 모든 우상을 파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진실히 섬겨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 2. 북한을 위한 기도

### “악한 자는 악한 계획을,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 북한 여맹, 중동·아프리카 국가들과 대비 사회주의 우월성 선전

독일·영국·오스트리아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실상 알려...



북한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 조직이 중동과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의 열악한 주민 생활을 거론하면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내용의 강연회를 진행했다고 21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지난 12일 평안북도 여맹은 중동과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열악한 생활환경에 따른 기아와 질병으로 수많은 목숨이 희생되고 있는 데 반해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에서는 인민들의 생활이 날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다’는 내용의 강연회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강연회에서는 중동과 아프리카 사람들이 살던 고장을 떠나 유럽 등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가기 위해 지금도 임시 집결지에서 밀항선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피난 가는 도중 질병과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소식통은 “중동과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사는지조차도 모르는데, 처음으로 그런 외국의 실정에 대해 듣고 신기해하는 여맹원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 피난민을 자처했는지, 나라를 버리고 떠난 도 반역자로 몰리지는 않는지 등 차마 물어볼 수 없는 궁금증을 품으며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전언이다.

이밖에 강연회에서는 ‘사회주의 제도에서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당과 정부가 나서서 심려하고 인민군대가 동원돼 더 크고 좋은 새집을 신속히 지어준다’, ‘과외 한국이나 일본처럼 고독사하는 노인들이 없다’면서 “이는 모두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와 조선노동당의 탁월한 지도 덕분”이라고 선전했다.

한편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있었던 지난 19일에 독일 본에서는 북한의 자유와 인권 개선에 초점을 둔 제4회 본 자유포럼이 열렸다. 회의에는 독일 연방의회 인권위원회 소속의 엘리자베스 빈켈마이어-베커 의원, 토마스 샤퍼 전 주북 독일대사, 탈북민 이소연 뉴코리아여성연합대표, 수미 테리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등이 참석했으며, 토론을 통해 북한 인권의 실상과 문제를 알리고 이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

앞서 지난 8일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대학교에서 “어둠에서 빛”이라는 제목의 강연회가 열려 탈북민들의 증언과 설명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였다. 또한, 11일에는 주오스트리아 한국 대사관이 비엔나 외교 아카데미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을 초빙해 북한 인권 세미나를 개최했다.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은 “유엔 북한인권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고 주민들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 권리 즉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면 보편적 평화도 없다며 국제사회가 이젠 창의력을 발휘하여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고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출처: 데일리NK, 자유아시아방송 종합).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멀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 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이사야 32:7-8)**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사무엘하 22:29-31)**

하나님,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수년째 1위를 차지하며 인권 문제에 대한 여러 나라들의 보고와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하고 있는 북한을 꾸짖어 주십시오.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선전하지만, 중동과 아프리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실상으로 인해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주께서 이들의 등불이 되어주소서. 북한의 정치적, 사회적 황포를 알리는 탈북자들과 단체들의 목소리에 세계가 귀 기울이게 하시고, 교회가 적진을 향해 기도로 달려 성벽과 같은 사회주의 사상을 복음으로 뛰어넘게 하소서. 그리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도를 믿으며 진실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백성들로 변화되어 영혼을 구원하는 존귀한 일에 힘쓰는 빛의 군사로 사용하여 주소소서.

###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내가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2만 명 참석 대학생 수련회, 50년 후엔 3분의 1 수준  
통계로 보는 캠퍼스 선교 반세기



한국대학생선교회(CCC·대표 박성민 목사)가 20일 엑스플로74 50주년 기념대회를 앞두고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50년 전 당시 엑스플로74 대회엔 총 32만 3,419명이 합숙훈련에 참가했다. 당시 한국의 기독교인(약 300만 명)의 10%가 한곳에 모인 셈이다.

특히 집회 기간에는 42만여 명이 복음을 들었고 27만 2,000여 명(약 65%)이 결신하는 열매를 맺었다. 전도에 나선 참가자는 20만 600명에 달했다. 외국인들 가운데서도 3,099명이 복음을 들었고 1,192명이 결신했다.

반세기가 흐른 캠퍼스 선교 현장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동시에 맞닥뜨린 1인 가구 증가와 청년세대 감소 등 축소 사회 여파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지난 1월 조사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2020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신뢰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10% 포인트 넘게 늘었고, ‘신뢰한다’는 인식은 21%로 10% 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박성민 목사는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와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캠퍼스 선교도 어려워진 것이 맞다”며 “하지만 교회를 생소해하는 청년 또한 많아지면서 다양한 전도방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점점 증가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타깃으로 한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외국인 유학생은 23만 4,721명으로 2021년(16만 3,699명)보다 43%나 늘었다.

박 목사는 “지금 세대의 특징은 하나로 귀결되지 않는다”며 “다양한 사고방식과 관심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전도방식을 개발하고 연구할 필요성 요구된다. 집단 전도보다는 개인과 일대일 관계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퍼스 선교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깨어나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박영률(81) 목사(전 CCC 총무)는 “후배들과 다음세대 부흥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며 “한국교회의 부흥은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에 가능했다.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선교하는 세대로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반세기 전 엑스플로74 대회가 쏘아 올린 부흥의 신호탄은 이후 한국교회의 부흥을 비롯해 캠퍼스 선교에도 크나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이어진 부흥의 물결은 이후 인구 감소와 한국교회 신뢰도 하락에 따른 기독교 영향력의 쇠퇴 등으로 이어지면서 학원선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캠퍼스마다 학령인구 감소와 이단들의 포교 공세 등 여러 방해 요소 속에서 대학생 선교단체는 복음 전파에 고군분투하고 있다(출처: 국민일보 종합).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아모스 9:11-12)**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데살로니가전서 3:8,13)**

하나님, 다음세대 부흥과 뜨거운 헌신이 과거의 이야기만 같은 이때, 말씀과 기도로 이들을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구하며 주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과 어려운 현실 속에 무너지고, 수많은 세상의 소리와 죄의 유혹으로 무감각해진 청년들의 심령에 십자가 복음이 들려져 소생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신뢰와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그 무너진 것을 주 앞에 인정하며 회개케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회복된 거룩함과 말씀의 능력을 가진 복음의 증인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다음세대가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기업으로 얻은 상속자로 주님 다시 오시는 선교완성의 그날을 고대하며 즐거이 헌신하는 권능의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다음은 '대륙별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도실1 -
- 기도실2 -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